

맞벌이 부부 늘수록 워킹맘 애환도 커져

회사 일에 가사, 육아까지... 긴장, 불안, 초조

맞벌이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살림과 육아는 여전히 여성 몫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인지 하루 24시간을 쪼개 회사 업무와 집안 일, 육아, 자녀 교육을 병행하는 직장여성 중에는 뭐든 다 잘 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이가 적지 않다.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한 것, 자녀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거나 너무 비싼 것, 남편이나 여타 가족이 가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 회식 등 직장 내 단체활동에 빠져야 하는 것 등이 워킹맘들을 힘들게 한다. 사진 배재만 기자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서 결혼 후에도 취업전선에 그대로 몸담고 있는 맞벌이 여성 또한 급속도로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배우자가 있는 1천162만 가구 중 맞벌이는 507만 가구로 전체의 43.6%에 이르렀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맞벌이 비율이 52.1%로 가장 높고 50대가 49.7%로 그 뒤를 이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 현상은 교육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공급 측면 못지않게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득을 높일 수밖에 없는 수요 측면의 영향이 크다. 고학력 여성이 늘면서 사회생활이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진 데다 사회적으로 여성인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결혼 후에도 회사 업무와 집안 일, 육아, 자녀교육 등을 병행하는 여성을 뜻하는 워킹맘(working-mom)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맞벌이해도 가사는 여성만의 몫?

삼성경제연구소 이찬영 수석연구원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올라 54.5%까지 달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64.8%에 비하면 아직도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여성이 결혼 후에도 바쁜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틈틈이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1년도 여성가족 패널 조사 사업보고서 및 제3차 기초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직장여성의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사회생활에 대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결혼 후에도 살림과 육아를 병행하며 일하는 여성이 꾸준히 늘고 있다. 사진_안정원 기자

약 40%는 장시간 근무가 가정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혼여성 5명 중 1명꼴로 결혼과 임신, 출산 때문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현실은 워킹맘의 고달픈 삶을 고스란히 대변한다.

이들 중에는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도 적지 않지만 가사, 특히 육아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넘어야 할 벽이 한두 개가 아니다. 맞벌이가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았지만 가사는 여성의 몫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아직도 적지 않은 탓이다. 그래서인지 워킹맘의 대다수는 뭐든 잘 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 이른바 '슈퍼맘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점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한 것(40.2%), 자녀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거나 너무 비싼 것(28.1%), 남편이나 여타 가족이 가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15.6%), 회식이나 워크숍 등 직장 내 단체활동에 빠지는 것(14.2%) 등이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다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고작 0.5%에 불과했다.

또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20~30대 워킹맘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약 70%가 직장생활은 물론이고 살림과 육아 등 가사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대다수 워킹맘은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어간다.

워킹맘의 시간 관리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을 기르며 13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모(여·39) 씨.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발언권을 가질 법하고 가사나 자녀 교육에서도 한결 노련해진 워킹맘이지만 남모르는 맘고생이 심하다. 올해부터 전국의 초·중·고가 주5일 수업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나오자 마음이 더욱 심란해졌다.

업무의 특성상 3주일에 한 번씩은 토요일에도 출근해야 하나 그때마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다. 평일에는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돌봐 주지만 미안한 마음에 주말에도 맡기는 것은 업무가 나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지방에서 근무하느라 주말부부로 지내는 남편이 그때마다 모든 일을 뒤로 한 채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오지만 행여 급한 일이라도 생겨 올라오지 못할까 봐 속을 까맣게 태우는 일이 빈번하다. 학교에서 '토요반'을 꾸려 오갈 데 없는 학생들을 맡아 준다고는 하지만 프로그램이 변변치 않은 데다 그나마



워킹맘이 업무와 가사를 효과적으로 병행하려면 전략적인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적절한 생활주기에 따라 일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사진_연합DB

도 선착순이어서 등록 기회를 놓쳤다.

그녀는 “낮에는 물론이고 야근이나 주말근무라도 하게 되면 그 때마다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어 직장생활에 애로를 겪는 워킹맘이 한둘이 아니다”고 털어놓고 “아이 곁에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없으니 싫든 좋든 아이를 학원으로 내몰 수밖에 없어 사교육비도 장난이 아니다”며 하소연이다.

그녀 말고도 비싼 양육비와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워킹맘은 수도무하다. 시간이 없어 아이를 잘 챙길 수 없다는 심리적 부담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아이를 챙겨 보려는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다. 집에 혼자 놔두는 게 불안해 이런저런 학원으로 아이를 내몰기도 한다. 좀

더 부지런한 워킹맘은 안 그래도 부족한 수면시간을 줄여서라도 몸소 챙기려 들지만 체력적으로 금방 한계에 부딪힐 뿐이다.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 소장은 워킹맘이 업무와 가사를 효과적으로 병행하려면 전략적인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하루, 일주일 등 적정 기간을 구분해 생활주기를 파악한 다음 일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매기라는 것이다. 단순한 일은 가급적 출퇴근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해결하고 남편과 아이를 가사에 동참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용한 물건은 그때그때 제자리에 갖다 놓고 요리를 할 때 주말을 이용해 일주일 치를 한꺼번에 해놓는 것도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된다. 편리한 가전제품이나 절반가량 조리된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소장은 그러나 ‘가족 모두 가사와 육아는 여자만의 몫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온 가족의 가사 분담은 필수라는 게 이 소장의 충고다. 혼자만의 노력으로 슈퍼우먼이 되기를 꿈꾸기보다는 가족구성원 간에 역할을 나누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가족에도 더욱 돈독하게 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